



호세리잘의 삶과 문학 그리고 필리핀

Jose Rizal's Life, Literature, and the Philippines

김동엽*

Dong Yeob KIM

마닐라를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들리는 곳이 바로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이다. 이곳은 스페인어로 ‘벽의 안쪽’이라는 의미이며, 1606년에 완성되어 스페인 식민통치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로 이용된 곳이다. 인트라무로스 유적 답사는 보통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마닐라 대성당에 시작된다. 성당 주변에서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노라면 여지없이 관광용 마차가 다가와 유혹한다. 낮선 거리에서 찌는 듯한 태양의 열기로 당황스러운 참에 이들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간단한 가격 흥정이 끝나면 이들이 가장 먼저 안내하는 곳이 해안방위를 위해 구축해 놓은 산티아고 요새(Port Santiago)이다.<그림 1> 당시 성곽의 흔적과 포대 등 요새의 유적들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호세 리잘(Jose Rizal, 1861-1896)의 흔적이다.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수감되어 생활했던 감옥과 당시의 모습들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보존하고 있다.<그림 2> 감옥에서 나와 형장으로 끌려가는 리잘의 발자국이 행로를 따라 길 위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지역원 HK연구교수. kimdy@iseas.kr



<그림 1> 산티아고 요새.
출처: 필자사진.



<그림 2> 감옥 속의 호세리잘.
출처: 필자사진.

에 새겨져 있다.<그림 3> 그리고 인근에 마련된 리잘기념관에는 그가 사용하던 각종 도구들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인트라무로스에서 나오면 인근에 수도 마닐라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이름이 다름 아닌 리잘공원(Rizal Park)이다. 넓고 아름답게 조성된 이 공원은 매연으로 가득한 마닐라 도심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로 인기 있는 곳이다. 이 공원의 한켠에는 리잘이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청동모형으로 재현해 놓고 있다.<그림 4> 그 입구에는 처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에 리잘이 써서 등잔 안에 몰래 감추어 전달된 그의 마지막 시 “Mi Último Adiós”가 새겨져 있다. 스페인어로 ‘나의 마지막 작별’이란 제목의 이 시는 ‘안녕 사랑하는 조국’이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시는 전세계 38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다. 시에는 어두운 시대에 큰 희망을 남기고



<그림 3> 형장으로 향하는 발자국.
출처: 필자사진.



<그림 4> 호세리잘의 처형
장면. 출처: 필자사진.

짧은 인생을 마감한 리잘의 슬픈 운명을 보는 듯하여 읽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중략)

내 영원히 사랑하고 그리운 나라
필리핀이여
나의 마지막 작별의 말을 들어다오
그대들 모두 두고 나 이제 형장으로 가노라
내 부모, 사랑하던 이들이여

저기 노예도 수탈도 억압도
사형과 처형도 없는 곳
누구도 나의 믿음과 사랑을 사멸할 수 없는 곳
하늘나라로 나는 가노라

잘 있거라, 서러움 남아 있는
나의 조국이여
사랑하는 여인이여
어릴 적 친구들이여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안식에
감사하노라. 잘 있거라
내게 다정했던 나그네여
즐거움 함께했던 친구들이여
잘 있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야 죽음은 곧 안식이니……

(“Mi Último Adiós”의 일부, 한국어 번역본에서)

호세리잘의 존재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위해 재현해 놓은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으로서 뿐만 아니라, 독립의 영웅이자 애국심의 상징으로서 필리핀 민족의식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리잘의 생애와 그가 남긴 작품은 필리핀법(RA 1425)에 의해 교과과정에 편입되어 필리핀 학생이면 누구나 교육받고 있다. 또한 그의 삶과 작품을 다룬 영화는 수차례나 제작되어 각종 영화상을 휩쓴 블록버스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리잘은 모든 필리핀 국민들의 정서 속에 아련한 애국심의 상징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그림 5>



<그림 5> 호세리잘 초상.
출처: 필자사진.



<그림 6> 집필하는 호세리잘 동상. 출처: 필자사진.

리잘은 스페인 식민통치(1565- 1898)가 종말을 향하여 치달고 있던 1861년 한 유복한 중국계 메스티조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천재성과 문학적인 자질은 일찍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에서 다니던 의과대학에서 원주민 학생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반항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스페인으로 유학길을 떠났다. 수많은 국가를 여행하였으며 최소 10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정도로 언어에 뛰어났다. 리잘은 안과의사로서 문학과 예술, 스포츠, 그리고 과학과 사상 등 거의 전 영역에서 탁월한 자질을 드러냈다.<그림 6>

천재 리잘의 삶이 필리핀 독립운동과 만나게 되는 것은 26세의 나이로 1887년에 발표한 소설 『Noli Me Tangere』(나를 만지지 말라)와 연관이 있다. 소설의 제목은 성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한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려 하는 마리아에게 한 말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서의 내용은 개정 한글번역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한 21:17). 이 성서 구절은 그의 시 ‘마지막 작별’의 내용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 소설을 통해 리잘은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을 묘사하였고, 이를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싹트게 했다. 이 소설의 후속편으로 1891년에 발표된 『El Filibusterismo』

(선동가)는 필리핀 독립운동의 씨앗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바라(Juan Crisóstomo Ibarra)는 리잘 자신의 삶과 사상을 대변하고, 리잘의 슬픈 연인 리베라(Leonor Rivera)는 소설 속의 마리아(Maria Clara)로 등장하여 필리핀 여성상의 대표적 이미지가 되었다. 소설 『Noli Me Tangere』와 『El Filibusterismo』는 각각 필리핀 중등교육 3학년과 4학년의 교과목에 들어 있어 청소년기부터 필리핀 사람들의 정서 속에 각인되어 있다.

300여 년 동안 지속된 스페인 식민통치로 인해 피폐해진 필리핀 국민들의 자의식과 만연한 사회의 구조적 병폐는 리잘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 열등감, 비겁함, 소심함, 그리고 그릇된 오만함 등을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표현했다. 리잘은 사회적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892년 반란음모에 연루되어 민다나오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도 학교와 병원은 세우고 계몽운동을 펼치는 등 자신의 신념을 몸소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리잘은 필리핀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지배자들의 말처럼 이들의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스페인 당국이 필리핀 국민들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리잘의 정치적 사상은 혁명적이기보다는 개혁적 측면이 강하다. 식민통치 하에서 모순 덩어리인 필리핀 사회에 대한 처방으로 식민통치의 척결보다는 식민통치의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민정부는 식민지 국민들에 대한 수탈과 노예화, 그리고 무지화가 아닌 교육과 계몽을 통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리잘의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사상은 아시아의 근대 개혁사상을 대변하는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 그리고 손문(孫文, 1866-1925) 등의 사상과 맥을 같이하며, 아시아에서 식민시대를 넘어 새로운 민족국가 시대를 여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필리핀 독립의 영웅으로서 리잘에 대한 필리핀 역사가들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리잘이 필리핀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싹틔게 했던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가 스페인 식민통치를

척결하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리잘은 1892년 필리핀 독립을 위해 결성된 비밀결사단체 까티푸난(Katipunán)의 지도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무장독립 투쟁을 부정했다. 한편 스스로 스페인이 치루고 있는 쿠바전쟁에 자원해서 참여하려 함으로써 식민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필리핀 독립에 대한 리잘의 소극적 태도는 필리핀의 진보적 역사관을 대변하는 학자들(Teodore Agoncillo, Renato Constantino)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까티푸난을 조직하여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주도한 보네파쇼(Andrés Bonifacio, 1863-1897)가 필리핀 독립의 영웅으로서 최소한 리잘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리잘이 필리핀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한 시기는 스페인의 뒤를 이은 미국의 식민통치 시기였다. 333년을 이어온 스페인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고 미국의 식민통치로 이어지는 과정은 필리핀 역사에 있어서 잔인한 시기였다. 1898년부터 1902년까지 이어진 미국과 필리핀의 전쟁은 34,000여명의 필리핀 독립군과 200,000여명이나 되는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전쟁의 잔학상은 각종 문헌과 매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의 저항적 독립운동 정신은 철저히 붕괴되었다. 이후 미국에 의해 실시된 동화정책은 교육과 선교를 통해 필리핀 국민들을 계몽하는 것이었고, 일정기간의 정치적 훈련과정을 거쳐 독립시켜주겠다는 약속으로 필리핀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데 성공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결정에는 자국의 국익과 관련된 내부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무튼 미국정부의 이러한 식민통치 이념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리잘이었던 것이다. 그의 사상에 내포된 계몽주의적 이념과 비폭력 개혁정신은 필리핀의 무장 독립정신을 대체할 좋은 대안이었던 것이다.

국가적 영웅으로서 리잘의 위상은 1946년 필리핀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960년대 말 진보적 민족주의 사상이 풍미하던 시기에는 일부역사가들에 의해 리잘과 보네파쇼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어진 마르코스 독재체제의 그늘 하에서 논쟁은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 필리



<그림 7> 마닐라 호화 쇼핑몰. 출처: 필자사진.



<그림 8> 마닐라 거리의 가판원. 출처: 필자사진.

핀 사회는 식민통치 시대에 구조화된 사회적 모순이 많은 부분 남아 있다. 특히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일부에게 집중된 부와 권력, 그리고 암울한 현실을 스스로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성 등이 이를 대변한다.<그림 7과 8> 온건 개혁주의자인 리잘이 아닌 급진 혁명주의자인 보네파쇼의 사상이 필리핀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날 필리핀 사회의 구조적 병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암울한 시대에 슬픈 운명을 살다간 계몽주의자 호세리잘의 사상이 필리핀 사회의 구조화된 모순 속에서 특권을 향유하는 지배층의 통치 논리로 왜곡되어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